

기독일보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대한예수장로교회 미주합동총회 인준신학교
2012년 가을학기(신·편입)학생모집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Tel: (818)337-8280 / E-Mail: spcr113@hot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출자, 차종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살리 정
213.276.8959
E-mail: usajk@gmail.com

Tel. 213-739-0403 Fax. 718-228-9506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uly 5, 2012 Vol.346



남가주 교계 해냈다! 남가주교협을 중심으로 한인교회가 적극 참여한 PRE 발의안이 180개 서명 차이로 근소하게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됐다. 이에 남가주교협 관계자들이 남가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6월 28일 열었다.

180개 차이로 주민투표 상정

남가주교협 “PRE 기적같은 승리, Class Act까지 성공해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법안인 SB48을 저지하는 데에 고배를 마셨던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필요한 유효서명 504,760개를 확보해 이를 2014년 주민투표에 상정하게 됐다.

SB48 통과 이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7천여 서명이 모자라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보수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비롯해 반동성애 사회단체들은 남가주에서 Class Act Committee 발족해 Class Act를 발의했고 북가주에서는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를 중심으로 PRE를 발의한 바 있다.

PRE의 경우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이 504,760개로 책정됐지만 마감일인 4월 11일까지 약 3만여가 모자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SB48 저지 당시에도 7천이 모자라 운동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경험을 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PRE의 경우 이미 모아진 유효 서명에 추가적으로 유효 서명 수만 채우면 주민투표 상정

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냈고, 그에 따라 2차 서명이 6월 11일까지 이뤄졌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2차 서명까지 합칠 경우, 전체 유효 서명은 총 504,940개로 집계됐으며 이는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수보다 180개가 많은 것이다.

남가주교협 산하 동성애교육반대서명운동위원회의 박성규 위원장은 “180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된 것이야말로 기적”이라며 “우리가 밖으로 나가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을 받을 때 보통 하루에 2-300 서명을 받았는데 하루라도 나가지 않았다면 이번 주민투표 상정도 고작 몇 서명 차이로 무산될 뻔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SB48 반대 때에만 해도 백인교회가 상당히 미온적이었으나 한인 등 이민자들이 열심을 갖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번 PRE 운동 때에 그들이 도전받았다”며 “한인교회가 엔진의 역할,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통 미국사회에서 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의 경우 많은 유급 인력이 필요

한데, 동성애 반대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한인교회에서 북가주의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로 직접 전달된 서명이 19,217개로 집계됐고 교협 등 연합기구를 통해 전달된 서명이 약 5천여로 총 2만5천을 한인교계가 담당한 셈이다.

PRE는 ‘Parental Right in Education’의 약자로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로부터 이뤄지는 교육의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교육이 자녀에게 이뤄지려 할 경우, 부모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의안은 동성애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에 부모가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한다.

한편, Class Act의 경우는 7월 11일을 서명 마감일로 앞두고 있다. 남가주교협 변영의 회장은 “PRE의 성공에 힘입어 Class Act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전략테이블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27일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북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논하다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 평신도, 한인 다민족사역자 등이 LA공항 근처 한 호텔에서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략테이블을 25일부터 2박3일동안 열고 향후 이민교회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들은 총 4 그룹으로 나뉘어 3일간 서베이 결과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수차례의 전략 회의를 통해 이민교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들은 “북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발표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1세 목회자 파트에서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교협 수석부회장), 2세 파트에서는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회), 평신도 파트에서는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 다민족 파트에서는 조용중 박사(글로벌비즈니스 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진유철 목사는 “현 한인교회는 교회 중심의 신학에서 직장과 가정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개인윤리 대(對) 사회윤리의 이원론이 적절되어야 한다. 고립된 목회자 아닌 유기적 공동체성을 가진 목

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대성 목사는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며, 2세 목회자들을 위해 미국 신학교 내에 문화적 민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침묵의 탈출’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교육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캠퍼스 교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원 장로는 “한인 기독교인이 미주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한인교회가 미국 내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인의식까지 함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중 박사는 “현재 한인교회가 지역사회와 다민족을 섬기는 이벤트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이제 이 이벤트가 운동이 되기 위해서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 모델로 변화되어야 하며 평신도훈련원을 각 교회가 개설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세들이 선교지향적인 성도로 성장하도록 동원하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 위한 성가합창제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대합창제를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이 합창제는 전중재 교수가 음악 총감독으로 연출하며, 은혜한인교회 성가대, 남가주사랑의교회 성가대, 웨스트힐장로교회 아이노스 여성중창단, 극동성가대, 레위남성성가대, LА남성성가합창단, 이와 Vocal Ensemble and Soloist, 코랄레움성가합창단, California Master Chorale 등 9팀이 참여한다.

김영대 목사는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교회관을 건립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고

기금 모으는 일에도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목사회 임원들은 28일 낮에 LA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올해는 회관 건립을 위해 종잡돈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운영을 위한 이사회 조직과 같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사회는 연말에 평신도지도자와 1.5세, 2세를 대상으로 회관 건립 기금 마련 행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영대 목사는 오는 8월에 세미나 강사 초빙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의 관계 협력을 위해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다.

토마스 맹 기자

라이프 신설 社告

〈크리스천 라이프 섹션이 신설되었습니다〉

- 13면 Book새통 - 목회자의 서재 <서바이벌 리더십>
- 16면 내가 닥터 - S자 몸매는 케병 S자 척추?
- 17면 너희 食物이 되리라 - 여름철 보양 음식을 찾아



푸드 여행 · 레저 문화 키버스토리

기독일보가 2012년 하반기를 맞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7월 5일 자로 라이프 섹션을 신설해 크리스천의 삶과 관련된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복스 섹션인 '복서툰'과 헬스 섹션인 '내가 닥터'는 매주 고정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섹션이 마련돼 푸드, 여행 · 레저, 문화, 키버스토리 순으로 대체로 정보들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밀린세금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Hwang,W	IRS \$62,317	합의 \$8,218
Mr.Lemonnier,H	FTB \$118,874	합의 \$1,700
Ms.Wilson,M	IRS \$450,190	합의 \$20,160
Mr.Kim,H (C.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Rogers,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Farley,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헬지사역

선교사를 위한 건강캠프

“전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캠프를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2012년 9월 13(목)~15(토) (2박3일)

- 질병예방 및 치료
- 성경적 식이요법
- 상담심리 및 정신건강



Tel.(213)747-0168 e-mail. gammission@gmail.com
1515 Maple Ave. #21, Los Angeles, CA 90015

강사: 김갑선 박사
성소영 박사, 이현수 목사

• 장소: Lollard 산장(LA에서 50mile 동쪽)
13762 Middle Fork Rd. Lytle Creek, CA 92358

- 대상: 선교사 부부
- 선착순 50명
- 등록마감: 8월 20일



나침반교회의 새 예배당 앞에 민경엽 목사(좌측에서 네번째)를 비롯해 교회의 중직들이 함께 섰다. 교회 측은 이 건물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행사와 음악회 등에 개방해 명실상부한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세워갈 꿈을 꾸고 있다.

지역사회 나침반될 것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13년동안 부에나팍 지역 복음화에 힘써 온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가 브레아(City of Brea)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다. 예배당 이전은 지난 2010년부터 만 2년동안 온 성도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지난 7월의 첫째날 오후 4시에 성도들과 축하객들이 모여 새 예배당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 다함께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브레아 시장인 돈 슈바이처(Don Schweitzer)와 47년 전 한국에서 해군으로 복역한 론 가르시아(Ron Garcia) 시의원, 브레아에서 30여년간 살고 있는 엔지니어 마이클 김 씨가 시관계자로 참석해 교회에 축하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건축위원장인 나중원 장로와 부동산중개인인 에드워드 리 씨에게 교회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설교는 OC교회협의회 회장인 엄영민 목사가 시편 65편 4절을 본문으로 ‘주의 전에 거하는 복’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교회 입당을 축하한다. 이 입당은 하나님께서 나침반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며 “본문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의 노래다. 여러분들이 이틀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이 교회를 통해 주께로 인도하길 바라고, 그들의 수많은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

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광길 목사(풀러선고대학원 부원장)가 “스카라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 교회 이전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투표결과 찬성이 많아 그 결정에 순종했다고 들었다. 우리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다. 이 시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로 부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김진경 총장(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영상 축사를 전해 오기도 했다.

예배의 사회와 헌금기도는 민경엽 목사가, 대표기도는 고석찬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선임목사)가, 축도는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회)가 맡았다. 성경봉독은 이민종 장로가 맡았고, 이화여고동창합창단과 대광고교졸업동문, 교회학교 뮤지컬팀인 NNG가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선보였다.

한편, 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강사 오영호 선교사를 초청해 “건강한 가정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가정부흥회”를 마련할 계획이고, 오는 22일 저녁 7시 테너 박인수 교수를 초청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562-691-0691

빅터 박 기자

GMU, ATS 준회원에 인준



그레이스미선대학교가 TRACS의 정회원, ATS의 준회원으로 인준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다.

그레이스미선대학교(GMU)가 TRACS 정회원 및 ATS 준회원 인준 감사예배 및 축하 연회를 28일 오후 개최했다. 이 학교는 지난 16년간 3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이중 70%가 현역 사역자와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로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후원의 밤을 겸해 열린 행사는 1부 예배에 이어 ‘포네’와 ‘Eternal Life’ 팀의 특송과 GMU 홍보 비디오 시청, 재학생 간증, 김광신 총장의 동영상 메시지, 후원카드 배부 및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한기홍 목

사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문도를 세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를 다니며 제자를 세우는 데에 집중했다”며 “신학교를 통해 주의 종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구 소련 지역에 2000여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모스크바 그레이스미선대학교 덕분”이라며 “또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대학에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돼 현재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계속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714-525-0088
www.gmu.edu.org
토마스 맥 기자

신앙에 생수의 강을... 큐티 세미나 열려

LA 동부 포모나에서 홈리스들의 친구로 알려진 남가주웨로침교회(박혜성 목사)에서 지난 23일 오후 6시 큐티라이프 대표 김은애 권사를 초청해 ‘생수의 강이 흐르는 큐티 나눔방’이라는 주제로 큐티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 관계자는 “올해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올초부터 6개월간 전교인 성경일독과 큐티 나눔방을 진행해 오던 중 중간 점검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행사는 1부 ‘큐티 모임 가이드’와 2부 ‘큐티 리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김은애 권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때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힘이 드나?” 질문을 던지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큐티 한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보지만, 매일 매일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큐티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룹을 만들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전



〈생수의 강이 흐르는 큐티나눔방〉 세미나에서 큐티라이프 대표 김은애 권사가 큐티 나눔방 통해 받은 경험과 은혜를 나눴다.

하며, “큐티를 그룹원들과 같이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 같은 경우 마음과 몸이 힘들다기도 큐티 모임을 통해 힘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간증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방의 좋은 리더들로 자라나

말씀 나눔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를 마쳤다. 교회 측은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나눔방 인도자들이 재현신을 다짐했고, 큐티 불참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박병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대표기도는 성익재 장로가 맡았으며, 축도는 박혜성 목사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천상의 메아리 맑은 영혼의 몸짓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이 온다!”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2012 전 미주 순회 콘서트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전세계 음악 전문가로부터 ‘천상의 메아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평가받는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이 오는 7월 남가주를 찾아옵니다. 소프라노 홍혜경과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과 같은 많은 음악인을 배출한 50여년 전통의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은 수정 같은 목소리와 최상의 하모니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여러분의 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전세계의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공연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에 한인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공연은 미주 한인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p>7월 25일(수)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1750 North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 913-4499</p>	<p>7월 27일(금) 오후 7:30 LA 사랑의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213) 975-1111</p>	<p>7월 28일(토) 오후 7:00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562) 860-5451</p>	<p>7월 29일(일) 오전 11: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818) 366-0089</p>	<p>7월 29일(일) 오후 7:30 리버사이드 한인침례교회 5413 Tyler St. Riverside, CA 92503 (951) 687-4070</p>
---	--	---	--	---

공동주최: World Vision · 월드비전 · 한국일보

공연문의: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1-866-육이오-1950 / 웹사이트: wvkor.org

월드비전(구 선명회)은 통일교와 무관한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이며,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5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남가주교계 동성애 반대운동 시발지
 단일교회 최대인 18,000 서명 받아 내기도
 새벽기도회 하며 전교인 참여해 서명운동 전개

캘리포니아 동성애 전쟁 주님세운교회의 358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SB48 저지에 불 붙이다

가주공립학교에서 동성애교육법안이 주상원의원 Mark Leno에 의해 발의되고 주의회를 통과해 2011년 7월 14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2012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남가주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산하 모든 교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STOP SB48이라는 주민투표 청원 운동을 전개했다. 주님세운교회는 박성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전교인이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했고, 2011년 9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교회 자체 내에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팀을 조직해 매일 40명이 4개조로 나누어 토렌스 지역 주요 한인마켓(한남체인, S마트 등)과 LA 지역(킴스전기 등)까지 나가 부스를 설치해 10월 8일 마감일까지 총합계 12,805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 기간에 LA한인축제(9/22-25)가 있어 장터에 부스를 마련하고 매일 40명이 2개조로 나누어 일일 평균 1,30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법안 상정을 위한 이 운동은 최소 6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됐고, 이때 남가주교협의 한인서명 목표는 15,000명이었다. 주님세운교회는 이에 교회 목표를 7,000명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표를 10,000명으로 상향 조정했고 결국 12,805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기적을 이루었다. 이 기간에 남가주교협과 한인교회에서는 모두 25,000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 절반을 한 교회가 감당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지 7,000 서명의 부족으로 SB48 저지에 실패했지만 이 운동은 미국의 회복을 위한 한인교회의 열정과 힘을 보여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박성규 목사는 "한인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2의 청교도로 세워진 믿음의 파수꾼들이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순교신앙으로 충성하며, 미국의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의 영성을 가진 한인교회를 캘리포니아에 1,350개, 전미국에 4,140개를 세워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기도의 용사로, 나팔수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했다.

PRE 발의안 주민투표 상정에 성공하다

2011년 SB48 저지운동이 실패했지만 동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며 부모의 자녀교육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발의안(Parental Rights in Education)이 2012년 1월 13일 승인됨으로써 다시 주님세운교회는

동성애 반대운동 주요일지

- 2011년 7월 14일
주지사 서명으로 SB48 발효
- 2011년 9월 3일
전교인 특새로 서명운동 시작
- 2011년 10월 8일
12805명 서명 확보
- 2011년 10월 10일
법안 저지 7천표 부족으로 실패
- 2012년 1월 13일
PRE 위한 서명 주정부 허가
- 2012년 2월 초
운동본부 재조직해 PRE 서명 시작
- 2012년 4월 11일
마감 됐으나 유효서명 3만 부족
- 2012년 6월 11일
서명 504760 돌파 투표 상정 확정
- 2012년 7월 5일
그리고 5가지 대안은?

동성애 문제, 방어전에서 공격전으로

박 목사는 동성애 반대 운동이 방어전 이 아닌 공격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안으로 다섯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한인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내에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박 목사는 "JAMA의 대표 김춘근 박사는 교인 수가 2-300명이 되면 프리스쿨이나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500명이 되면 중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1,000명이 되면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독교 사립학교를 통해 우수한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국을 변화시키는 요셉과 예스터 같은 리더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공립학교 내에 기독교 교사들을 통한 성경공부 운동을 활발히 일어나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립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를 개방하고 교사들에게 점심을 주며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어머니 기도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킨 후 어머니들이 인근에서 모여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기도운동을 장기적으로 펼쳐 나감으로 공립학교가 변화될 수 있다.

넷째로, SB48이나 SB1172 같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 법안을 제정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인 퇴진 운동과 경건한 기독교 정치인을 세우는 일에 기독교인 시민권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예스터, 다니엘처럼 미국의 주류 사회에 올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키워야 한다.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킬 정치인과 기업가 등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끝으로 박 목사는 "한인교회는 크루즈가 아닌 항공모함과 같은 사명을 가졌다. 3,000명이 타도 500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여행을 즐기는 크루즈교회로 만들지 말고 5,000명이 있어도 모두가 전신 무장하여 적들과 싸우기 위해 각자 맡은 사명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항공모함교회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PRE 발의안 상정에 한인교회에서 모두 25,000개의 서명을 받았다. 이 숫자는 비록 적을 수 있지만 이민자인 한인들이 마켓에서 열심히 서명을 받는 모습에 미국교회가 깨어났고 평신도들이 일어났다. 우리 한인교회가 엔진의 역할을 한 것이다. 비록 작지만 큰 트레일러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의 역할을 한인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 김준형 기자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Office: 323.556.5386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일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을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포스트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Elms 2001, Lajolla, Fairfax, Wilshire, 맥도널드

이민교회의 현주소는 여기... 이제 나아갈 방향은?



정인수 목사



민종기 목사



진유철 목사



박세현 목사

이민신학연구소는 지난 1년 3개월에 걸쳐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한인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인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략테이블을 2박3일간 개최했다.

이 전략테이블에는 소장 오상철 목사를 비롯해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세현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등 교계 1세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2세는 민 청목사(Covenant Fellowship Church, IL), 박영배 목사(Newlife Mission Church, CA), 정대성 목사(Newlife Mission Church, CO) 등 미국 내 2세 목회를 이끌고 있는 1.5세 출신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참여했고 나성영락교회 교육부를 이끌었던 1.5세 목회자인 노승환 목사(토론토밀알교회)도 캐나다에서 참여했다. 평신도 중에는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가 참여해 큰 의미를 더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전략테이블에서 나온 각종 평가와 견해들을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제1회) 1세 목회 테이블 참가자: 정인수, 민종기, 진유철, 박세현 목사

I. 서론

우리의 목회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도 좋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이민교회사적으로 보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4,109명의 응답자 중에서 북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1세 목회자 864명은 54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SPS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으로 1세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현실인식과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평가하면서 1세 목회자를 위한 다음의 제언을 마련했다.

다만, 이 설문에 응답한 모집단이 비교적 대규모 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대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II. 목회에 적용 가능한 제언

1. 민족적 정체성: 1세 목회자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57.3%).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의 목회의 이민 햇수가 거듭되면서 Korean-American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32.6%). 이는 1세 목회자들이 선임자(old-timer)가 되면서, 확실한 민족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

고 목회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세의 경우도 75.6%가 Korean-American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목회가 보편화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받은 영향,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국적 문화: 1세 목회자의 문화 또한 한국적이다. 1세 목회자는 거의 다 한국어어를 사용하며, 한국방송을 듣고, 한국신문을 읽는다. 가정에서도 영어가 가능하면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세의 목회는 종종 문화적인 고립을 면치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의 권위주의나 비전의 결여라는 단점과 만날 때, 오히려 교회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1세 교회는 10년 이상된 교회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서히 안정 상태를 향하여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4%의 교회가 9년 이하의 개척교회이다. 이는 이민교회가 교회개척에 있어서 아직도 높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하는 자료이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의 지원을 얻어서 개척할 수 있다면, 개척의 성공률을 높이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1세 목회자의 고학력과 자질부족: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지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는 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1세 목회자들 중 미국에 와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80%에 육박한다. 지적으로 상당한 성취를 갖춘 목회자들이 미국 각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민교회의 큰 자산이며 고학력 사회를 염두에 둘 때 매우 바람직한 선행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자질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다. 목회자의 영성 및 지도력 부족, 인격적인 미숙함, 목회적 훈련의 취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좋은 경력과 학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 갈등의 원인으로 재정 사용의 불투명, 목사와 장로의 갈등 및 평신도 사이의 불화 등을 들게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목회자의 지도력 및 자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현장에서 고립을 예방하는 목회자 멘토링, 재교육 프로그램, 목회자의 심리적 치유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수의 1세 목

회자가 2-3명의 멘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4. 보수적인 신학적 경향: 1세 목회자의 신학적 경향은 보수적이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적인 경향은 사회적 관심의 결여와 다민족 사역에 대한 한계성을 보여 준다.

보수적인 목회자의 개인구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복음의 문화·역사적 심화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일뿐 아니라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이민 교회의 문화적 폐쇄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선교하는 교회조차도 외국에서의 전도를 선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평신도들의 직장 가정과 교회 속에서의 선교적인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짙다.

5. 이민교회의 선교적 책임: 이민교회는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선교의 실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독자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력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남미 선교에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을 수 있다.

74%의 교회가 예산의 5% 이상을 선교에 투입하고 있으며 52%의 교회가 재정의 1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적 책임을 해외선교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방위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결국 복음전파와 문화변혁이라는 이원론과 해외선교와 국내전도의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목회와 선교의 분리를 지양하고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전방위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6. 윤리적 사안에 대한 영향력: 기독교 윤리에 대해 1세 목회자들은 매우 보수적 입장이었다. 특히 동성애자의 교회

출석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나,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나 직분 수여에 대해서는 90퍼센트에 가까운 비율이 반대를 표했다. 즉 동성에 경향을 지닌 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한인교회는 낙태,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기독교 개인윤리면에서의 강력한 보수성은 교회의 사회참여나 시민 운동에 있어서도 동일한 보수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민교회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대한 교육과 기독교 사회윤리에 대한 바른 시각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제자도에 있어서도 제1차적인 교회 안의 제자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직장 속에서의 제 2차적인 제자도로 이어져야 함도 확인했다.

7.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 이민교회는 일반적인 공익성 캠페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나, 특정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더구나 주민발의안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교회의 입장 표명에 있어서도 1세 목회자들은 일관된 중립성의 견지를 선호했다. 이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앞으로 도덕적인 사안이나 유권자 등록과 같은 문제에 대해 교회가 앞장 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당에 대한 지지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정반의 표명에 있어서는 엄정중립을 지키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목회자는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III. 결론

이민교회의 1세 목회자는 보수적이다.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보수성, 교회의 역할에 대한 보수성, 기독교 윤리적 사안에 대한 보수성, 그리고 선교와 정치에 대한 중립적, 보수적 입장이 일관된 태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복음의 확대 및 교회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영향력의 증대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 중심의 신학에서 직장가정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이원론의 철결이 필요하다. 개인윤리-사회윤리의 이원론을 체결하고,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민교회와 사역의 외연을 한국교회, 커뮤니티 봉사, 전방위선교, 노인학교 등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1세 사역자 가운데 30%가 멘토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 목회자들이 고립되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력자가 가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를 위해 신학교와 교회, 교회와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성과 네트워크가 요청된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전연한약재료 증상별조제 처방감기약 \$20-\$30선 가능

여행자보험 건강보험 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1기, 2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역은 축복 가운데 37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여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고 계십니다.

모집 안내
 신청자격: 하나님을 영접하신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분
 모집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희망 선교사)
 2. 선교의 사명을 가지신 평신도로서 의료선교사가 되고자 하시는분
 3.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분
 모집인원: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 함)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교육기간: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개강일자: 2012년 8월 6일 (화요일)
 교육장소: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8218 B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접수처: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교육강사: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교육내용 (근육통증 전문 치료술)
 1. 근육 교정학: 통증을 전문치료하는 의술.
 2. 체형 교정학: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3. 척추 교정학: 바른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4. 영양 물리학: 식품의 음양과 인체의 음양 (자연식의 원리)

교육의 특징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교육은 악용이나 가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랙티, 근육전문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는 유일한 선교법인입니다.

수료후 특징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선교 법인 세계 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836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 562-547-8653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빌립보서 2:1-11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빌립보서 2:1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아무 일에도 자기보다 먼저 사랑을 나타내며 4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끼지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기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속물근성을 드러내며 세상에 집착하고 빠져들며 얽매어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본문을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면서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이 일치하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아무 일에도 자기보다 먼저 사랑을 나타내며 4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자본과 직책에 충실함으로 영적인 믿음이 확실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소임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 후에 주변을 살피며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 넘어지려는 사람들을 붙들어 부축해 주고 하나님 앞으로 더 힘있게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

의 본체시며 동등된 분으로 같은 권리와 자격을 공유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동정탄생하게 하심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으며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신 분입니다.

2.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장 온전히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서 6절~8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곳까지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Christ), 즉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4:12)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죄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이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1:30-31)했으며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고 현몽(現夢)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음으로 대속의 희생양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2:10) 이것은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에 따르는 부답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행동으로도 주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킹제임스버전(King James Version) 요한1서 5:7절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이것은 직역하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

니 아버지와 말씀(아들)과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로 신약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 제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원본에 가까운 번역으로 성경을 만들기 위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한글판 성경은 미국의 개역판(Revised Standard vers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개역한글판 성경으로 요한1서 5:7 말씀을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곧 한 몸인데 이 세 분의 역할분담을 한 번 더 머릿 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었습니다. 이 세 분이 의논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26 이하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복수 호칭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학자들은 구약시대 아버지 하나님인 법으로 다스린 세월을 400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사탄의 꾀에 빠져 마귀와 한패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들 속에 불어 넣어주신 영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괴롭고 아픈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악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음으로서 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도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을 옆에 계신 성령님이 감당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양으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고 아들이 부활승천하셔서 약속하신대로 성령을 보

내주심으로 오순절 강령 이후 약 2000년 세월을 이 땅 위에 성령이 계속 불같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애타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7-8)

3. 생활전폭으로 시인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 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하심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길 때에 내가 그 성령을 받아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며 큰 소리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 유행불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성령이 필요했고,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성령의 보증이 필요했으며, 성령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지구 역사는 성경적 종말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생각, 표정, 행동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적체질 신앙으로 변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전폭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생활로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땅에 살아도 하늘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대접하시며 보호하시므로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시길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수요일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토요일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11시 50분		미국 기독교일보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교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A UNIVERSITY
TRACS 평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학사(B.A.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200 Anaheim, CA92801/www.evangelia.edu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사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효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호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벨앨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술중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제미남가주총회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및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 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 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취급하시는 분 하숙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취급 품목

오징어젓	우렁된장	간장고추
어리굴젓	냉이된장	된장고추
가리비젓	양념게장	명란젓
황새기젓	양념깻잎	창란젓
더덕무침	간장깻잎	낙지젓
파래무침	된장깻잎	조개젓
무말랭이	고추잎무침	갈치젓
고추전어	장어구이포	
연근조림	마늘쫄무침	

서광식품

(213)268-7004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7전8기의 삶, 복음을 향한 넘치는 에너지

[인터뷰] 복음 전도사 신섭 장로

“7전8기의 은혜”의 저자 신섭 장로(보정침례교회). 그는 70대 고령이지만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고 패기와 기백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될만 했다. 그래서 평신도 중 초정하기 힘든 10인에 선정된 지 모른다.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한 열정을 드러내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각종 운동을 섭렵한 것이 기초가 돼 중환무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기업을 거느린 기업총수였던 그가 그의 에너지를 이제 복음을 향해 내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는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자전거 배달을 시작으로 생활 전선에 나선다. 이후 약품 도매상을 거쳐 6년 만에 운수회사, 물류회사, 주유소, 정비소, 골재건설업, 가스회사 등을 거느린 기업총수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는 없었다. 그러다 1983년 정치적 문제로 흑자도산하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영주기도원에 들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환점을 맞는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그는 브리태니커사 한국지사에 백과사전 판매원으로 입사해 책을 팔며 복음을 전하다 브리태니커 본사로부터 세계 서적판매상을 수상, 전세계 서적 판매왕이 된다. 또 그는 여러 기업에 CEO로 스카웃되며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살려낸다. 그는 말한다. “크리스천이 변화하지 않고 자신을 혁신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자세가 중요하죠.”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 듯 크리스천이 낮아져야 합니다. 예전에 30개 회사를 갖고 있었을 때 크리스천을 안 믿었습니다. 일도 잘 못하고 그들을 쓰지 않았죠. 크리스천들이 변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신명기 말씀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내 경우 미치니까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불행, 불만을 내려놓고 ‘안된다는 생각’, ‘죽겠다는 생각’, ‘소아병적인 사고’를 버리고 로키산맥의 열음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전도부터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브리태니커사 한국지사에 백과사전 판매원으로 들어가서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해 예배부터 드리고, 미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지만 이런 기술도 있어

야 합니다. 책을 팔러 다닐 때 마음의 자세는 ‘내가 노크하고 들어갈 때 팔지 않고는 안 나온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크리스천인 것이죠. 세상에 나와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양으로 여기고 나아가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직장 매출은 올라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평소의 전도 철학은?

손해를 봐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택시 운전할 때나 책을 팔 때나 낮아져야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한때 저서 수입비와 여러 수입으로 심일조를 1000만원씩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집이 없습니다. 죽을 때 등기를 가져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니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로 5가에서 자전거 배달을 시작으로 회사가 30개로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문제가 돼서 고난의 길이 시작됐죠. 그래서 들어간 곳이 영주기도원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신용도 안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42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숲, 담배, 골프, 낚시 등을 다 끊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춤을 췄다면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신바람나게 춤을 춥니다.

-뒤늦게 교회에 나와서 밀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평신도들에게 하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욕망과 젊은이의 열정을 갖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술 한 잔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세상에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OO약품에서 CEO로 스카우트 됐을 때 개업식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율통성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 성적을 올리니 보는 눈이 달라지더군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백을 갖고 도전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업과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집사로, 직장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리타이어(Re-tire, 타이어 교체)하라고 말합니다. 제 나이가 74세인데, 앞으로 11년이 더 있어야 85세입니다. 천국 가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은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섭 장로

-현재 집회를 많이 다니고 계신데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얼마전 태국에 갔다가 쓸개를 떼어냈는데 의사가 일주일 3일은 꼭 쉬라고 했지만 집회 일정이 빽빽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한 달 정도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중국 하북성에 현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기름진 국과 음식을 주는데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었으니 죽지 않더라고요.

또 한국에 와서 발가락이 좋지 않아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30분 이상 서 있지 말라고 했는데, 2-3시간 이상 강의해도 괜찮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맑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에 목회자보다 더 초창기 어려운 평신도 강사로 알려졌 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비전은.

아들이 한의사인데 영어와 중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고, 딸은 러시아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합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나 인공근육을 다니면서 가족선교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단체를 만들어 운영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치면서 봉사하는 구제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섭 장로 7월 집회 일정

- 7월 1일(일) 오후 1시 30분 한인커뮤니티교회(조경현 목사)
- 7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
- 7월 8일(일) 오후 1시 30분 월드타운교회(이모세 목사)
- 7월 9일(월) 오전 9시 30분-12시 YWAM Diaspora(장성일 목사)
- 7월 9일(월) 오후 12시 30분-4시 비전트립(University Mission Adventure)
- 7월 22일(일) LA사랑의교회 1부, 2부, 3부(청년), 4부 예배 설교
- 7월 27일(수) 희망찬교회(박성찬 목사) 토마스 멍 기자

월드비전 합창단 미주순회 공연... LA도 방문

‘천상의 목소리’, ‘천사들의 합창’ 등의 찬사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이 2012년 순회 공연을 갖는다.

선명회 합창단은 오는 7월 25일 LA를 출발해 한달 동안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필라, 뉴저지, 뉴욕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총 18회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성가곡과 민요, 뮤지컬 메들리와 한국 전통 음악, 부채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선명회 합창단은 과거에 공연을 펼친 적이 없는 라스베가스, 댄피스, 어번 지역을 방문해, 전통 문화와 수준 높은 합창에 목말라 있던 한인 동포 사회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라스베가스한인회 이경수 회장은 “세계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레저 산업이 꽃피고 있는 도시인 라스베가스이지만, 그것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명회 합창단의 맑고 정제된 음악성과 한국 전통 문화들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며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0년 8월, 전쟁 고아들 가운데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선발해 설립한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은 이후 미국 후원자들을 찾아 감사를 전하고 한



월드비전 합창단이 2012년 미주 순회공연을 시작한다.

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 수차례 해외 순회 공연을 가져 왔다. 그러다 1991년 경제 성장에 힘입어 월드비전 내에서 한국이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한국이 아닌 전세계의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연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78년 영국 BBC방송국 주최 세계 합창경연 대회 우승, 88 서울 올림픽, 각국 정상 방한시 특별 공연과 수천회에 이르는 국내외 연주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합창단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소프라노 홍혜경, 카운터 테너 이

동규 등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는 성악가들을 배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1750 N. Edgemont St. LA, CA90027), 27일 오후 7시 30분 LA사랑의교회(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28일 오후 7시 세리토스장로교회(11841 178th St. Artesia, CA90701), 29일 오전 11시 밸리연합감리교회(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91344), 29일 오후 7시 30분 리버사이드한인침례교회(5413 Tyler St. Riverside CA92503)에서 각각 열린다. 한주연 기자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프로모션 변경 세일!

세일기간 :
7월 31일까지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프로모션 B

프로모션 C

오리지널7병+알파0병 =
7병 (210불)

오리지널4병+알파2병 =
6병 (220불)

오리지널1병+알파4병 =
5병 (230불)

100불 +tax

100불 +tax

100불 +tax



신제품

알파

50불/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구연산복용체험담

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 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하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비염,코골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뒷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물든 마시니 졸리지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질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철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문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역부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수련회를 통해 행복을 나누었다.

여성 미주식구들 “행복한 목회” 외쳤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 지방회(회장 최한오 목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012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80여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Happy Ministry,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2박 3일에 걸쳐 열린 이번 수련회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와 테마여행, 조별 탁구대회, 족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으며, 특히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첫째날 두란노교회를 답입하는 이상문 목사는 “행복한 목회는 목회자가

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개척하여 재적 3,000명의 부흥을 일으키기까지의 체험을 담은 강의를 통해 참석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었다.

또한, 둘째날 예전교회를 답입하는 정성환 목사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품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 땅에 통쾌한 치유자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셋째날 벤엘교회를 답입하는 이상복 목사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목회

의 목적과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티면, 1년을 버틸 수 있고, 1년을 버티면 10년을 버틸 수 있다고 간증을 나눠 참여한 여러 목회자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 텍사스주 달라스로부터 참석한 민선식 전도사 부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벌써부터 내년 수련회가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213-434-1083(강양규 목사) 한주연 기자

“행복한 길이 바로 여기 이곳에”



김성민 담임목사가 직접 기타를 치며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 중 다양한 문화공연도 큰 호응을 얻었다.

글렌데일에 사는 김정현(가명·여·38)씨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몇몇 권사·장로님들의 위선에 신물이 나 교회에 발길을 끊은지 오래다. 예수 없이도 잘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 쳐 왔지만, 갈수록 그의 삶은 메말라 가기만 했다. 이민 와 결혼에 실패하고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헤어날 수 없는 미궁에 빠져 하루 하루의 삶이 고통 그 자체인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왔다. 평소 그를 위해 기도해 오던 크리스천 친구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정현아, 우리 교회에 한번 가 보지 않을까?”

지난 1일, 나성한인교회에선 새신자들을 위한 ‘행복나눔’ 전도축제가 열렸다. 이 교회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에 걸쳐 담임 김성민 목사의 지휘 하에 제자훈련에 올인해 왔다. 전도팀을 구성해 조직적 파워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탓인지 이번 행사에 새신자만 대략 1백여명이 참가할 것으

로 집계됐다. 신생 개척교회도 아닌, 나이 30년을 훌쩍 넘긴 교회로서 ‘대단한’ 성과다. 더욱이 담임목사가 부임한 지 2년도 채 안돼 이같은 성적을 올렸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나성한인교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수를 모르는 비신자뿐 아니라, 기존에 교회를 다녔으나 교인간 갈등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어 “오는 12월에도 이 같은 행사를 또 한 차례 치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이 찬양팀’의 찬양을 비롯해 ‘소망원디걸스’의 댄스, 성극 “나의 모든 것 되신 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담임목사의 설교, 인생의 의미를 조명하는 동영상 ‘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정하나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제9회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컨서트 / The 9th Fundraising Concert for Mission

사랑 이야기
Love Story on Wheels

힐체어

박모세 목사 독창회
Baritone Recital

- 일시 / When: 2012년 7월8일(주일) July 8(Sun) 7:00PM
- 장소 / Where: 윌셔연합감리교회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 찬조출연: Sook Myung Cantemos 남기주농악교회, SDM찬양팀
- 후원: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 위클리, 트리스탄헤럴드, 미주기독교방송
- 주최: 샬롬장애인선교회 (T. 323-731-7724) (Shalom-Disability Ministries)

www.shalommin.com

미주예심대학 첫 수료생 25명 배출



예심전도대학 졸업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것을 다짐했다.

성공적인 전도 훈련을 통해 전도가 침체된 교계에 불타는 구령 열정을 불러 넣어 온 예심대학(학장 김기남 목사)이 미주에 진출,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 장소:남기주농악교회)을 설립하고 첫 수료생들을 배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25명이 수료증을 받고 전도전문가로서의 재비를 마쳤다. 이들 수료생들은 “예심 전도 훈련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전도의 원리와 방법을 배워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특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예심전도 훈련’은 체계적이며 복음적인 전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과 전도에 두려움을 지닌 자들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첫 주에 3일간의 집중 세미나와 10주간의 교육훈련을 제공, 마지막 주에는 특강과 함께 수료식을 거행함으로써 12주의 전 과정을 마쳤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오는 17일(화)부터 19일(수)까지 제3차 예심전도 집중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 26일(목)부터는 제2기 전도대학을 10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714-401-9874

한주연 기자

“한국교회, 과격한 진보 아닌 온건한 복음주의 지향해야”

이영훈 목사 2012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서



이영훈 목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주최한 '2012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란 주제로 지난 25~28일 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마지막 날에는 종강예배와 함께 이영훈 목사, 민경배 교수, 김경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새 시대의 목회'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세계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이 오순절성령운동(Pentecostal Movement)에 주목하고 있다"며 허버드대 하비 콕스 교수(Harvey Cox)의 저서 <The Future of Faith>를 인용, "성령목회가 이 시대 교회의 희망적 대안이며, 오순절성령운동이 21세기 영성을 주도해 갈 것"을 예견했다.

이어 "제3세계 교회의 폭발적 부흥은 오순절성령운동에 기인한 것이며, 로잔, WCC(세계교회협의회), WEA(세계복음

연맹) 등 국제기구 모두 오순절교단의 참여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오순절교단의 규모가 커져 세계적 운동이나 모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버밍햄대 홀렌베거(Hollenweger) 교수는 오순절운동 참가자가 20세기 말 2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백년 만에 약 6억 3천만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이 목사는 오순절운동의 근간으로 ▲강력한 기도운동 ▲근본주의적 신앙에 근거한 말씀운동 ▲성령침례 받고 방언을 말하는 방언운동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신유운동 ▲재림을 앞두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전도운동을 전한 후, 이 시대 한국교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내적 치유에 대한 목회적 관심과 ▲북한 선교를 위한 전도운동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교회의 사회참여 문제와 관련,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모든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동성애, 낙태반대, 인종차별 및 인권문제 등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과격한 진보주의적 개혁운동보다는 온건한 복음주의적 개혁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다"고 했다.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큰 교회의 위기와 작은 교회 운동'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작은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슈퍼마켓들이 도산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듯 주변에 대형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주변상가에 자리잡은 임대교회들이 줄을 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며 "대형교

회가 아닌 작지만 개성있는 교회, 지역 사회 내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목회자 개인이 교회를 개혁하기보다는 기성교회가 일정한 숫자가 되면 자기 몸을 나누는 방식의 '분가선교'야말로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분가선교의 특징으로 건강한 선교전략,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의 민주화

와 개혁에 참여하는 분담구조,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전략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강연 이후 강연선 목사(순복음 영산교회)는 '성령의 힘을 소유하라(행 1:8)'는 주제로 종강예배 설교를 전했다며, 이양호 원장(연합신학대학원)은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신태진 기자

대선출마 김문수 지사 나라의 정신, 교회가 감당해야

교회 지도자 조찬포럼 참석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국교회가 위기라 하고 대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신 깊숙한 곳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지금까지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가 보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다. 한국교회엔 희망이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김 지사는 28일 아침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 지도자 조찬포럼'에 참석해 대선에 나서는 각오와 자신이 펼칠 정책, 통일 문제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기독교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 등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기독교에 영향받은 바 크다"며 "성경에는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지혜와 힘이 있다. 이로 인해 나 역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교회도 독재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민주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과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성경에 있다. 원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기막힌 반전의 힘이 그 안에 있다"며 "이를 따라 운명보다는 사명, 천명을 따라 살고자 하고 경천애인의 지도자가 되려 한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거꾸로라도 지면서 사족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한때 학생운동의 선두에 설 만큼 소위 '좌파'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것에 대해 "젊은 시절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과 친일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독재권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우연히 사회주의권 국가를 방문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조차 위협받는 상황을 보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실상은 불평등하고 독재 권력이 판을 치는 사회주의의 현실을 목도한 후 돌아섰다"며 "나의 이 같은 경험이 이념의 양극을 아우르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 없이 돈과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랑이 있다면 콩 하나라도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눌 수 없다. 통일 문제는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안보 및 외교적 차원과 대북 교류와 협력, 개혁과 개방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햇볕정책은 후자를 강조하고 지금 정부는 전자를 강조하는 경우"라며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금강산 관광도 다시 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만들 것이다. 더불어 국방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중심점으로 인해 북북갈등이 없지 만 남한은 이념적 대립으로 남남갈등이 심각하다"면서 "그 원인에는 교육이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사상의 대칭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광화문광장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싶다"는 의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되고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안되느냐"며 "고구려나 조선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 대한민국이 써 왔고 그 중심에 역대 대통령들과 시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구려와 조선의 역사는 찬양하면서 정작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선 무시하고 때론 그것을 부정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이른바 '종북'에 대해선 "진짜 간첩이나 종북주의자들은 오히려 친북적 성향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사람이 종북이다 저 사람이 종북이다 선분리 말해선 안된다.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 등 전문적인 공안 기관에 맡겨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관들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신적 영역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생명의 문제는 돈과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나라의 정신적 수준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www.ptsa.edu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다섯 비전의 날개로
웅비(雄飛)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세계를 섬기고 변화시킬 귀한 인재를 초청합니다.

1 다섯 가지 비전

1. 다문화사회 및 세계 선교현장에 맞는 양질의 신학교육
2. 경건에 깊이 뿌리내린 맑고 역동적인 영성교육
3.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교육
4. 급변하는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읽어내는 인문학적 교양교육
5. 실제적인 이종언어교육

1 특 전

- 본교는 미주지역 한인 최대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총회 직영 신학교로 졸업 후 본교단 목사 안수 후 미국이나 선교지에서 목회 가능.
- 본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목사고시 후 목사 안수 가능. 본 교단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이명 가능.
- 본교 졸업 후 본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미국장로교회 (PCUSA) 소속 교회 이명 가능.
- 본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BPPE)로부터 인준받았고, 성서대학협회 (ABHE) 정회원 학교로서 북미주 (캐나다 포함)에 산재한 200여 개 신학대학으로 전학 및 진학가능.
- 본교는 신학협회(ATIS)로부터 준회원으로 인준받았고, 정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
- 본교는 여러 장학제도가 있음. (성적, 근로,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형제자매, 부부, 지정 등) .

1 입학

- 가을학기 접수 마감일 : 2012년 8월 17일(금)
- 가을학기 개강일 : 2012년 8월 27일(월)
- (여름계절학기 : 2012년 6월 4일~8월 17일, 수시등록 가능)
- 모집 : 대학부(신학과-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대학 졸업자)
- 구비서류 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참조할 것.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SEVIS I-20 발행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장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e-mail: office@ptsa.edu
www.ptsa.edu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남예배 매일 오전 7:00 (더글러스 4가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 (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민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00

남가주펠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지훈련사역과 생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교회안내 문의
T. 213.739.0403

뉴저지목사회 신임회장 이우용 목사



뉴저지한인목사회 제3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정중양이 이우용 목사.

제3회 정기총회 열려

뉴저지한인목사회가 25일 뉴저지중앙교회(담임 이우용 목사)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우용 목사, 신임부회장에 이병준 목사를 선출하는 등 신임임원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우용 목사는 지난 회기까지 부회장으로 섬겼다.

이우용 목사는 "8년 전에 뉴저지교협 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바쁜 이민목회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이 단의 미혹이 심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뉴저지 목사회를 통해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평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좀더 하나님 앞에 신명해지고 준비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구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은퇴 목회자를 모시고 행사를 가졌을 때 현장에서 물러나신 많은 목사님들이 외롭고 힘든 상황 중에 계셨

다. 교회들 중에도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소외되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자 한다"며 "교회가 많아지면서 서로 비방하는 덕스럽지 못한 소식들도 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선교와 복음전파에 힘쓰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신임임원은 △총무 박찬숙 목사(임마누엘성결교회) △서기 권형덕 목사(참사랑교회) △회계 이은혜 목사(뉴저지교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사는 양부환 목사(참사랑교회), 박정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가 맡았다. 이날 안건도의 시간에서는 새 회원으로 김영민 목사의 가입을 허락했으며 미비 안건은 임원회에 위임됐다.

앞서 열린 예배는 박찬숙 목사의 사회로 이병준 목사가 기도, 이우용 목사가 설교, 정창수 목사(뉴저지교협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우용 목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대원 기자

네트워킹, 전문화, 펀드레이징 초점

북미주CBMC 총연합회

은종국 회장 인터뷰

지난 21-23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최된 제17차 북미주CBMC 전국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은종국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북미주CBMC 총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패션 주얼리 전문업체인 골든 스텔라 대표이 기도한 은 회장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의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은 회장과 의 일문일답.

먼저, 북미주CBMC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말해 달라.

공동체가 크던 작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부담이다. 지난 해까지 역임했던 애틀랜타한인회장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CBMC 회장직은 영적인 부담이 더 크다. 하지만 적당한 부담과 책임감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과 헌신, 봉사가 나온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한다.

CBMC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역과 총연합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 왔나?

처음 CBMC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도 알라스카에서 열린 제6차 전국대회다. 당시 애틀랜타에서 뜻이 맞는 몇몇 분들과 팀을 이뤄 방문했다. 당시에도 150-160명 가량이 전국에서 참석하셨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다. '신앙의 시야'가 좀더 넓어졌다고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40대였고 섬기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던 상황에서 CBMC 모임에 참석하면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선 분들을 만나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이후 CBMC맨이 되고자 결심하고 7차 뉴욕대회에 참석해 겁없이 8차 전국대회를 애틀랜타에 유치하는데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2006-7년도에는 애틀랜타 CBMC 회장을 역임했고, CBMC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2008년부터 4년간 한인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원래는 2009년에 한인회장을 마치고 2010년부터 CBMC 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아야 하는데, 한인회장을 연임하게 돼 수석부회장으로 2년 더 사역하고 이번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새로운 회장으로서 비전과 목표가 있을텐데?

CBMC 모임의 기본 단위는 '지회'이며, 동시에 하나의 전국적인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회장으로 할 일은 크게 세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동하도록 네트워킹하고 코디네이팅하는 일이다. 현재 미 전역 30개 도시에 약 50개의 지회가 구성돼 있다.

이를 지역별로 묶어 8개의 연합회를 만들었고 애틀랜타는 살롱, 시카고와 함께 중부연합회에 속한다. 우리가 무슨 정치조직이나 사회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를 잘 연결하고 활성화를 도와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 10대 CBMC 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은종국 장로

둘째는,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연합회를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사무총장제를 도입했다.

제 8대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달라스의 이광의 씨가 초대 사무총장으로 3년 정도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몇몇을 임원으로 선출해 활동해 왔는데 이제는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를 잡을 때라고 생각해 시도한 일이다. 사무총장은 행정적인 일에 중점을 두고, 회장은 대외적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CBMC 본부를 달라스에 두고 사역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한다.

셋째는 펀드레이징이다. 2015년이 북미주CBMC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기념해 펀드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조달해 현재 1년에 약 10만 불의 예산이 운영되는데 전국적인 조직으로 이는 적은 감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밝히겠다.

미 전역에서 동남부, 특히 애틀랜타CBMC가 차지하는 위상은 어떤가?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은 현재 열심을 내고 있고 뜨거운 지역이라고 본다. 우리 모임도 한인사회 성장이나 발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 LA에서 가장 먼저 CBMC가 생겼고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오면서 뉴욕에서는 십 년 전쯤 활동이 활발했다. 지금은 추세가 동남부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가령 워싱턴 D.C.가 지금은 가장 활발한 상태다. 또 애틀랜타와 달라스가 뜨겁다.

앞으로는 몽고메리 지역에도 지회를 개설할 계획이고, 중부연합회 배현구 회장이 동남부 다른 도시로의 확산을 책임있게 감당해 가리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전국적인 모임이나 대회 계획이 있나?

앞으로 CBMC 본부는 텍사스 달라스에 둘 계획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임원 모임을 주로 그곳에서 갖게 될 것이다. 2-3년 후에는 다시 한번 전국대회를 애틀랜타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경기침체 체감도 사상 최악

교회 직접 타격

바나그룹리서치 결과, 34% 헌금 줄이는 등 위축

미국 경기 침체 체감도가 사상 최악으로 드러남에 따라 톤 큰 기부로 유명한 미국인들의 기부 심리도 바짝 움츠러 들었다. 가장 큰 타격은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이다.

최근 바나그룹 리서치가 발표한 조사결과, 미국 성인 중 34%가 (개인의 삶에) 경기 침체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던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08년에는 22%, 2010년에는 27%가 2011년에는 28%가 경기침체 영향을 중요하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경기 회복에 3년 이상이 걸리거나 혹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수치는 올해 50%를 기록했다. 같은 질문에 2008년에는 24%, 2010년에는 44%, 2011년에는 53%가 동일한 응답을 내놓아, 경기침체 비판론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의 타격은 어떻게? 조사 결과 교회 헌금을 줄인 비율은 2008년 20%, 2010년 29%, 2011년 30% 순으로 점점 늘어나 올해 가장 많은 34%의 미국인들이 교회 헌금을

줄였다. 게다가 교회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사상 가장 높은 11%를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47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중년층(40%)이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8세에서 46세에 속하는 청장년층이 35%로 그 다음, 65세 이상 노년층이 27%로 세번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대로 드러났다. 이중 중년층이 교회나 비영리 단체 기부를 가장 많이 줄였다고 밝혔다.

또 가톨릭 교인은 개신교인보다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교회 헌금 지출은 개신교인보다 더 많이 줄인 그룹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외 경기침체의 큰 타격을 받은 그룹 중에는 연소득 4만불 이하 가정, 이혼 남녀, 기독교인을 제외한 타종교인, 비유권자가 있다.

이 조사는 48개주 1,056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시행했다. 오차율은 +/-2.9%다.

권나라 기자

RCA 교단, 女목사 안수식 거부 못해

143대 69로 양심 조항 삭제 결정, 노회 과반수 찬성하면 최종 확정

개혁장로교(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가 최근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예에 양심에 따라 참석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의 삭제를 결정했다. 총 143대 69로 조항의 삭제가 결정됐으며 이는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내년부터 공식 실행된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교단 소속 여성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문조사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여성 목회자들은 RCA교단이 처음 여성 목사를 안수한 30년 전에 비해 사역의 장애가 줄고 여성에 대한 지지 기반이 넓어졌다고 밝히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나, 소위 '양심 조항(양심에 따라 여성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으로 인한 차별 혹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24%에 달했던 것이다.

1979년 총회에서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한 RCA 교단은 1980년 이 문제를 공식 문서화했으며 당시 교단 내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양심 조항'을 추가시켜 타협점을 찾았다. 양심 조항에서는 "만약 노회 소속 회원이 성경에 기반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말씀의 사역자로 여성을 안수하거나 세우는 의식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나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관할 노회가 여성 목회자 안수식 혹은 후보자를 세우는 책임에는 관여하



지난 RCA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심 조항' 삭제는 노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내년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으로는 RCA를 비롯 미국장로교(PCUSA), 미국연합감리교(UMC), 성공회(Episcopal Church),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루터교 등이 있으며,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으로는 남침례교(SBC)와 미국장로회(PCA) 등이 있다.

권나라 기자

동성애 때문? PCUSA 교세 200만명 이하

지난해 96개 교회 6만여 교인 이탈



PCUSA의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들은 교단 탈퇴 및 교단 내에서 반대 운동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의 교인 수가 최근 2백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교단 총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만3천804명의 교인, 96개의 교회 및 소속 단체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인은 소속 교회 해산이나 탈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탈퇴 혹은 해산된 교회 96개 중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신학적 차이로 인한 것은 총 21개.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며 자유주의로 흐르는 교단의 신학적 흐름이 교세 감소의 주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피츠버그 노회 쉐던 W. 소지 목사는 "(감소는) 미국 개신교단의 전반적 흐름 중 하나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도 타 교단으로 옮기는 교회들이 늘고 있지만, 교단의 규정 사항과 특정 가르침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교단에 남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교회도 많다"고 크리스토퍼 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교단이 동성애에 옹호 입장을 취함으로써 교세 감소를 부추겼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 노회인 '모어 라이트' 마이클 에디 총디렉터는 "숫자에 연연해선 안된다. 교단의 크기가 아닌 사역과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더

많은 청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바나그룹 조사에 따르면 16세에서 29세 젊은층의 대다수가 반동성애 교회를 차별적이라며 출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이외 교세 감소의 원인을 운운하기보다 현 세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선교 대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격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레이디 파슨스 목사는 통계를 접하고 총회에 보낸 편지에서 "지난해 회원수 감소는 지난 4년간 가장 낮았다"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 앞에 직면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욱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둘째 현대 사회에 늘고 있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피츠버그 노회 쉐던 소지 목사도 "교인들이 많이 떠나는 상황이지만 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되새기고 깊은 헌신으로 교인들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장로교는 2000년 총 250만명의 회중이 있었으나 지난 10년 사이 전체 교인의 20%가 감소했다.

권나라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길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한오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온전한 영혼구원과 함께 나라를 이끄는
성령의 열매와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흥의 열매를 맺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교회안내 문의
T. 213.739.0403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민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2:00 2부예배(EM)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50 이동부예배(EM)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침울)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BOOK

새 통

책으로

통하는 세상

추천 도서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

사토 아키라 지음 | 이민영 옮김 | 240면 | 두란노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제일성서침례교회 이야기이다.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과 지척에 있던 교회는 폐쇄되었고,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약 70명의 성도들은 비록 교회를 잃었지만 기도와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서로 의지했다. 그들의 눈물겨운 피난 보고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수성가 :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라

강정훈 지음 | 228면 | 생명의말씀사

이 책은 변영신학에 물든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왜곡을 불러 일으키는 요셉의 꿈과 성취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 과연 요셉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기간일까? 저자는 요셉의 진정한 꿈의 성취는 오히려 총리 이후의 기간이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꿈의 성취이자 언약의 완성으로 본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확인하길 바란다.



신앙성숙을 위한 사닥다리

오석규 지음 | 210면 | 베다니출판사

이 책은 평소 신앙의 성숙을 고민하거나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의 20년 기도원 기반의 신앙이 장로교 교회에서 겪게 되는 영적 갈등과 극복 과정을 통해 신앙성숙에 이르는 길을 재미있고 속도감 있게 썼다. 무엇보다 신학과 신앙, 영성과 지성, 감성과 이성, 이성이 나누어 가운데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읽는 이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이끌어 준다.



목회자의 서재

“새클턴에게 서바이벌 리더십을 배우라”

‘목회자의 서재’라는 코너를 새롭게 열면서, 첫 인터뷰 대상으로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고민하다 책 많이 읽기로 소문난 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강진웅 목사(사진)를 만났다. 첫 타자로 그를 선정하게 된 데엔 친분이 있는 지인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꼽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데니스 N. T. 퍼킨스의 <새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을 들었다.

우선 이 책의 즐거움을 대강 보자.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1874~1922)은 미지의 남극 대륙을 횡단한다는 야망을 품고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투어런스호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남극대륙을 밟아 보기 전에 웨들해에서 부빙군에 갇혀 표류하기 시작한다. 인투어런스호는 남극대륙에 가까이 가보

지도 못하고 9개월 동안 정처없이 떠다니다가 심각하게 파손돼 침몰한다. 새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은 구명보트에 의지한 채 빙산 위를 떠돌며 1여년 만에 전원 생환이라는 기적을 이뤄낸다. 표류한 지 634일 만에 극적 생환이었다.

남극을 최초로 정복한 아문센은 새클턴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새클턴이 그처럼 보잘 것 없는 장비로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새클턴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대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 목사는 새클턴에게서 이민목회자들이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올해로 14년째 이민목회를 하고 있는 그는, “이민교회 상황은 마치 얼음 바다 위에 난파하는 배와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새

클턴과 그의 대원들이 마주했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극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존 자체가 위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서바이벌 상황 속에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새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에서 힌트를 얻어 보자. 저자 데니스 N. T. 퍼킨스는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을 발휘해 서바이벌에 필요한 다음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공급적인 목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라.
- ▶가시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 상징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라.
- ▶낙천적인 마인드와 자기 확신을 가지라. 단 현실적 기반 위에서.
- ▶자신을 돌보라. 스테미너를 유지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 ▶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화하라.
-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서로에 대해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라.
- ▶갈등을 극복하라. 분노를 억제하고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불필요한 힘 겨루기를 피하라.
- ▶축하할 일, 함께 웃을 일을 찾아라.
- ▶큰 모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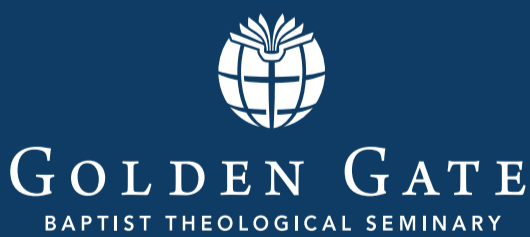
음반소개

방익수 목사 6집 앨범 <불가능 가능케 돼>

지난 18여 년간 <사랑의 나라로>,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안에 사는 이>,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총 5개 음반을 발매해 전 세계 3000여 회 집회를 인도해 온 워십 리더 방익수 목사의 6번째 음반 <불가능 가능케 돼(Nothing is impossible)>가 곧 한국어 발매될 예정이다.

이번 앨범에는 그가 얼마전에 사랑의방주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한 생생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다.

특히 타이틀 곡인 “불가능 가능케 돼”는 힐송처치(Hillsong Church)와 함께 호주 예배사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플래닛 웨이커즈의 곡을 번역해 불렀다. 앨범에 수록된 8개 트랙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천국의 소리로 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찬양한다.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수업시작일: 8월 26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고난을 이기는 마음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악이 관영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도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나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理神論)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재자'(主宰者)이십니다. 이 높고 광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우리는 다음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강대국이나 제국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큰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이 제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숭배하면

서, 소유를 무한히 넓히고, 국경을 넘어 욕심을 한없이 넓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사 13:1-14:23),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사 14:24-27), 블레셋을 황폐하게 하십니다(사 14:28:32).

둘째로, 우리는 역사의 주재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구잡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높은 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자신

이 "생각한 것"과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사 14:24)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경영"이라는 "야아츠" 혹은 "에차"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이 오랜 기간의 빈틈없는 준비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사랑을 내포함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커다란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심판하시되 "그

명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사 14:25)고 말씀하십니다. 앗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경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울러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깨달음 없이 교회를 공격하다가 멸망되는 이방인을 향하여 영적인 연민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라고 기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욱 전도와 기도애 매진합니다.

아빠를 부탁해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회마저 적어지지 말아야.

요즘 마치 외로운 섬에 혼자 있는 기분이다. 자녀들이,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너희 부모가 병들어 오래 누워 있거나 세상 떠난 후에 불효했다고 후회하지 말아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신지 오래 되었으나 지금도 나는 부모에게 잘 못 한 것을 후회하며 만일 부모님이 다시 살아 오시면 정성껏 모시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내 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산다. 너희들은 나와 같은 실수가 없기를!

또 하나있지, 너희들은 어떻게 무조건 엄마 편이나? 며칠 전 우리 집 뒷뜰의 나무 울타리를 없애면 전망이 더 좋아지겠다는 내 의견에 너희들이 찬성했지. 그런데 며칠 후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 엄마는 반대했어. 울타리가 없으면 짐승들이 들어와서 꽃밭을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야. 그러자 너희들은 그냥 엄마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쳤지. 나는 반론을 폈어. 낮은 철망을 치면 괜찮다고 했으나 너희들은 계속 엄마 편이니 나는 응원부대가 없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지. 이번만 아니라 언제나 너희들은 무조건 엄마 생각이 맞다니 나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지.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다.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해. 아빠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단다. 안녕.

메타인지 능력(Metacognition)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볼가에서는 스님들의 교만과 아집을 없애기 위해서 탁발(托鉢: 도를 닦는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탁발은 "비력질"을 의미합니다. 거지처럼 "발우(鉢盂)"라는 그릇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생계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음식을 보시해 주는 사람들에게 복덕(福德)을 쌓게 해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 주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출가한 사람이 오히려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부(富)를 누리고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어 본래의 취지였던 득도(得道)를 포기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도의 방법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실 때,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게 하시고, 마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신세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집이 부하든 가난하든 가리지 말고 한 곳에 머물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나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누가복음 9:1-6)

의식주나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

고, 질투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메타인지 기능"입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의 저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인간의 지적 역량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인간 지능 가운데 "자기 이해 지능/ 자기 통찰 지능"을 포함시킵니다. 이 지능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등 자기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내가 우울한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스스로를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을 되돌아 보고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집중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타인지 기능이 강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뽑기 위해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 결과 역경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이해 기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신을 아는 것(Knowing thyself)"입니다. 몇 억만 광년이 걸리는 먼 우주에 떨어져 있는 별과 성단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작은 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해진 채 부끄러운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인식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Socrates)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결국 철학의 시작이고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세 철학의 문을 연 데카르트(Descartes)의 방법서설의 토대가 된 것도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메타인지(Metacognition)"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인지능력입니다. 즉, "인지하고 있는 자신을 인지하는 능력(Cognition of Cognition)"입니다. 웃고, 울고, 화를 내

영성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이 메타인지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만 잘난 줄 압니다. 도무지 "자기반성"이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쉽게 상실해 버립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제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민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강점으로 쓰임 받고 약점은 다스려야 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템플턴상입니다. 이 상을 만든 존 템플턴 경은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대를 거쳐 옥스포드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 선교사들을 만날수록 점점 선교에 자신이 없어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후, 월스트리트로 나가 '템플턴 그로우스 펀드'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그는 금융계의 선교사가 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며 객관성, 성경적 판단력, 믿음을 통한 인내력을 키워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고 그 결과 템플턴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교사가 되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강점을 잘 사용하여 다른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드러내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고전7:7)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의 즐거움에 똑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 만 반대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 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와 같았던 그랜트 장군을

발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단점이 아니라 '전쟁에서만은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그의 강점을 보고 쓰임 받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점 없는 사람만 일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이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강점을 드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약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점을 쓰임 받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나의 약점을 다스려야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프로권투가 인기 종목이었던 시절, 유명했던 핵주먹 프로복싱 선수 마이클 타이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타이슨은 자신의 강한 주먹이라는 강점으로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휩쓸

며 1회전에 막강한 상대를 주먹 한 방으로 넘어 뜨리기도 하는 등, '핵주먹'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1997년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경기 도중 상대의 귀를 물어뜯는 추태를 부려 비난을 사기도 했고, 그 후 성폭행, 마약 소지,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잦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타이슨은 젊은 시절 주먹 하나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이후 방탕한 생활과 이혼 등으로 망진하고 현재는 의식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피폐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프로복싱계에서 핵주먹이라는 별명처럼 강한 인물이었지만,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니 결국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구별된 나실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놀라운 강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삼손은 영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강점을 묻어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머리 쓰는 수수께끼 내기를 하다가 울무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점으로 쓰임 받으며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설

기독교회관 건립사업에 부쳐

남가주한인목사회가 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최근 열었던 일일식당의 결산보고를 발표했다. 총 수입 39,246불 중, 두 식단에 낸 식사 원가에 해당하는 17,849불을 제하고 나면 21,397불이 실제 수입에 해당한다. 이 수입 중 3,328불을 각종 광고비로, 1,368불을 행사용품 제작비로 사용했고 행사준비 및 모금 활성화를 위한 무료쿠폰 발행에 5,912불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21,397불의 실수입 중 10,789불의 순수익을 올린 셈으로 썩 나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행사를 두고 교계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된 것도 사실이다. 교협이 아닌 목사회가 기독교회관을 건립할 공인된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논란부터 목사회들이 일일식당 표를 팔고 식당 앞에서 홍보하는 모습이 적절하냐는 시비도 일었다. 최근에는 4만여 불의 수입 중 일부가 유용 혹은 횡령됐다는 의혹까지 발생하면서 목사회의 회관 건립 사업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실제로 목사회의 결산 자료를 보면 그런 의혹이 들만한 것도 사실이다. 순수의 10,789불 중 3,220불을 한국에서의 모금을 위한 투자식 경비로 사용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무료 쿠폰 발행에 무려 6천불 가까이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확대 해석하면, 39,246불 중 결국 잔액이 7,569불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

고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회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는, 갖가지 억측과 갈등으로 변질 수도 있었던 이번 일일식당의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다. 그동안 교계의 많은 단체들이 재정불투명으로 인해 그 신뢰를 상실해 왔다. 이는 결국 모든 교회의 존엄성에 까지 막칠을 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목사회는 사업수입은 안 좋았지만, 교계단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존심을 지켜낸,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간 많은 교계단체들이 재정불투명성으로 인해 겪은 망신을 생각할 때 이런 성공적이지 못한 재정보고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

둘째는, 어찌 되었거나 목사회가 적지 않은 노력과 열심을 갖고 교계연합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수입이 39,246불이라면 한 티켓이 10불이었으니 일주 계 발생하면서 목사회의 회관 건립 사업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목사회는 향후 모금에 있어서 더욱 더 치밀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독교회관 건립의 명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기독교회관은 목사회의 전유물이 아닌 남가주 교계의 불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

여름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교회에서 여름은 영적인 각성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인 것 같다. 평소 해 보지 못했던 신인의 도전과 헌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여름 단기선교다. 우리 교회도 멕시코와 과테말라, 중국에 선교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살던 삶의 현장을 떠나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을 싣고 가는 것은, 여행을 넘어서는 인생의 새로운 체험이며 결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 체험과 도전에 한 번쯤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난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한 번쯤 비행기를 전세 내서 해외 선교 다녀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했던 대답이었지만, "전체 교인이 한 번쯤 비행기 전세 내서 선교 다녀오는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진정한 바람과 꿈이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되어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결론 때문인 것 같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선교에는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배경이 문제되지 않는다. 선교에는 먼저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배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요즘 들어 경제가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교는 결코 경제적인 이

유로 제한받지 않는다. 선교는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고자 할 때 경제의 원리가 풀린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열어붙은 경제 때문에, 점점 침체되어 가는 사업의 현장 때문에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푸는 방법은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이다. 경제는 경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푸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여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원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분명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여름에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한인교회 실태조사 큰 승리다

이민신학연구소가 1년 3개월동안 4,109명을 설문하며 진행한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실로 적지 않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 모든 이민교회가 이뤄낸 쾌거라 볼 수 있다. 108년 역사만에 한인교회의 실태를 총망라하는 자료가 처음 발간됐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적이다.

이 일을 위해 앞장선 오상철 소장 과 연구원들에게 먼저는 감사를 전한다. 108년동안 그 필요성은 공감되어 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과업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로서 한인교회는 역사학자 카의 표현대로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몇가지 안타까운 점도 있다. 이 설문조사가 사상 최초로 진행된만큼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한 분야를 다루어 목회자들이 각 분야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몇몇 설문에서는 이민교회의

실태보다는 단순한 인식, 고정관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부분도 있다.

2세 성도와 교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목에서는, 2세 학자들이 이번 연구에 대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이나 접근법에 있어서 1세적인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광야같은 이민교회 현실에 전에 없던 새 길을 낸 이민신학연구소가 이런 몇가지 오점과 난관으로 인해 그 다음 이어져야 할 세부적 연구와 조사를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갈멜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후엔 의외로 작은 일에도 좌절하기 쉬운 법이다.

부디 오상철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 이 연구에 함께 한 이민교회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연구와 조사에 매진해 이민교회의 밝은 미래를 진단, 컨설팅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자 동 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것입니다.

주관 : 기독일보 후원 : NARA AUTO바디, LA정비, 웨밀리자동차 연락처 : 기독일보 213-739-0403

내가 닥터

척추, 건강의 핵심이다!

S자 몸매는 커녕 S자 척추라고요?

소중한 내 허리, 운동 치료로 바로 세운다!

10대 청소년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 10대 청소년 척추측만증 환자는 21.1% 늘어, 전체 환자 증가율(12.2%)의 두 배에 가까웠다. 척추가 '기형(畸形)'적으로 생긴 1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척추측만증이란 곧게 선 자세에서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어야 할 척추가 휘거나 뒤틀린 각도가 10도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학계에선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약 85%)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조기 발견을 통한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윤 원장은 "휨 정도가 40~50도를 넘어 가더라도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하다"면서 "숨 쉬는데 장애가 있거나 장기를 압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한 선 수술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척추 건강을 위해 평상시 올바른 자세 관리와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있을 때는 항상 머리와 척추, 어깨와 골반의 균형을

운동이 좋다. 측만증이 염려될 경우, 평소 식사시 단백질 섭취에 유의하자.

무엇보다 척추 측만증은 성장기가 지나면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척추측만증을 자가진단하는 8가지 방법이다.

▷똑바로 서 있을 때 한쪽 어깨가 지나치게 축 쳐져 있다.(똑바로 서 있을 때 한쪽 어깨가 솟아 있다.) ▷골반이 한쪽으로 유난히 틀어져 있다. ▷한 쪽 젖가슴이 다른 쪽에 비해 덜 발달돼 있다. ▷서서 땅을 짚을 때 손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한쪽 등이 튀어 올라와 있다. ▷피곤한 증상이 심해서 조금만 걷고 앉아있어도 힘들어 한다. ▷서 있는 자세에서 한쪽 날개죽지뼈(견갑골)가 더 튀어나와 보인다. ▷팔을 편히 늘어뜨렸을 때 양쪽 손끝의 높이가 다르다. ▷신발 굽을 살펴보면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다.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오는 7월말까지 어린이 허리 건강을 위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는 20불.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773-7000 또는 (323)677-4900으로 하면 된다.

10대 척추측만증 환자 크게 늘어 오래 앉으면 허리 휘어질 확률 ↑

지지 않았다. 주로 학교 건강검진에서, 또는 부모가 우연히 발견해 병원을 찾는다.

미국의 경우 중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만 간혹사가 육안으로 체크하는 정도에 그친다. 측만증의 경우 육안 식별이 가능할 정도면 이미 휨 각도가 20도 이상 넘어간 경우가 허다하다.

자생한방병원 윤제필 원장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척추가 휨 각도가 20도 이상일 때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양 어깨의 균형이 맞지 않아 외형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40~50도까지 휘게 되면 성장에도 지장을 주기가 안 자라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성장기에

유지하도록 하고, 앉아 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허리를 의자 깊숙히 넣어 바르게 앉는 것이 좋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넣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깨와 굽힌 무릎 안쪽에 손을 대고 허리를 약간 비틀어 5초동안 멈춰다가 풀어주기를 되풀이 한다. 한 쪽에 10회씩 교대로 하면 척추측만증도 치료하고 허리디스크도 예방할 수 있다.

되도록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적당한 허리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 인대를 강화시키고, 운동은 골프나 테니스보다는 수영이나 자전거타기 등 양측성

척추측만증(脊椎側彎症)이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일직선이어야 할 척추가 S자 모양으로 휘거나 뒤틀린 각도가 1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구의 약 2~3%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는 필요없다. 꾸준한 자세 교정과 운동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다.

3분만 운동하십시오!

일상생활 또는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병 예방은 물론 유연성, 관절가동범위, 혈액순환 등에 좋고, 신체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유쾌하게 해 준다. 특히 하루에 두 번 3분씩 척추체조를 통해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해소되고, 튼튼하게 변화된다.

△생활 속 요통 해소방법=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빠근할 때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가볍게 켜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통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도 수월하다.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는데, 따뜻한 물을 배꼽 근처까지 오도록 한 후 침투 1/3병을 부어 몸을 담그면 빠근한 느낌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 허리디스크 예방운동 (누워서 척추 비틀기)



1. 양팔을 벌려 T자 모양으로 누운 후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 올린다.



2.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눕힌다. 이때 얼굴은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의 반대편인 오른쪽을 향한다.



3.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자세를 풀어서 반대쪽으로도 같은 시간만큼 한다.

당분은 1/2로 낮추고 건강은 2배로
명품 저당도 크림꿀

아이다호 크림허니 캘리포니아 딜러십 획득

당뇨 위장병 성인병, 설당대용으로
설당이 몸에 나쁘다는 건 모두 알고계신 사실
천혜의 청정지역 아이다호 고산지
클로버와 알팔파에서 추출한 야생건강꿀
Cox's Honey
California Exclusive Distributor
LA, OC지역 무료배달

귀국선물로 최고의 선물

\$50 5LBS

도·소매 사업자와 세일즈 하실분 모집

Jwon Trading Inc.
213-487-1116
2846 W. 8th St. #203
LA, CA 90005

HYUNDAE BIDET™ 현대비데 미주총판
Non Electric, Electric & Hybrid Type

**현대비데 (병,온수)와
설치비+Tax 포함**

\$119.99

1년 워런티

- 비데기능은 오직 세정
- 물탱크 없이 직수로 사용
- 위생적인 비데
- 한국제품의 우수성

- ① 여성전용 노즐과 노즐 자동세척기능
-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 영구적 사용
- ③ 오도염, 방광염, 냉대하 및 자궁질환, 향문 질환 완화와 예방

타주 및 지역 대리점 모집

썩담배, 금연초~!! 100% 니코틴 프리

“기관지에 썩품 효과”

아직도 담배때문에 걱정하신가요?
100% 썩을 원료로 만들어
몸에 좋은 담배 대용품!
금연과 더불어 기관지
독성제거와 썩품효과까지!
LA, OC지역 무료배달

10칸/1보루 50% Sale \$30

고수익의 창출

슈퍼파워 Sale 1Box \$60

남자의 힘! 여자의 행복!

-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
- 신속하고 5일 간의 지속적인 효능
- 복용 후 1시간 이내 100% 효과
- All Natural
- 근본적 성기능 개선
- 1회 1알 만족한 효과

LA, OC지역 무료배달(2box 이상)
도매 하실 분과 OEM 생산 문의 **213-505-3355**

Made in USA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以熱治熱 무더위 저리가라~

“火끈한 보양식으로 몸 보신하세요”
올 여름엔 영양 듬뿍 전복 삼계탕



한여름 이기는 푸르른 맛 “채식주의”
여유롭고 옛지있는 젊은 층에 인기



죽향의 김혜란 사장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식으로도 인기다. 죽향의 요리에 쓰이는 전복은 모두 생전복이다. 살아있는 전복만 들여와 바닷물로 채워진 수족관에 화씨 53도의 적정온도를 맞춰 보관하고 있다.

닭고기는 기름기를 말끔히 제거해 '담백, 깔끔, 깨끗한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한국 무형문화재인 김장수 선생이 만든 인삼약주를 한 잔씩 선사한다.

삼계탕은 방학을 맞은 자녀를 위한 성장 보양식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닭고기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다. 닭 날개 부분에 있는 뮤신이란 성분은 성장을 촉진하고 운동기능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

또한 전복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며 비타민과 칼슘, 인 등의 미네랄 또한 풍부해 영양학적으로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딱이다.

죽향은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맛 좋기로 유명하다. 건강식에 대한 죽향의 노력은 2003년 오픈 이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또 요리에 쓰는 모든 물은 정수된 물만 사용한다. LA 한인타운 내 양·한방의사들도 즐겨찾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웰빙 식당'이다.

여름철 별미 메뉴로 전복삼계탕 외에도 여름철 궁중음식에서 유래한 전형적인 여름철 국수 조계면을 비롯해 통오징어, 낙지, 미더덕, 꽃게, 조갯살 등 10여가지 신선한 해물과 살아있는 전복을 맛볼 수 있는 전복해물찜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매콤한 전복갈비찜과 갈비찜전골 등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다.

▷영업시간: 월-금요일 아침 6시 30분-밤 10시 30분, 토일 아침 7시-밤10시 ▷위치: 3177 W. Olympic Blvd. LA(올림픽과 세라노) ▷전화: (213)487-5002

최근에는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면서 보양식의 흐름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건강·다이어트·웰빙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채식 뷔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다.

고단백과 고지방, 고칼로리로 자칫 '비만식'이 될 수 있는 육류 대신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이용해 원기를 회복시키는 '채식 보양식'이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인기 만점이다.

채소 중에서도 특히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콩은 단백질이 많이 기운을 보충해 주고 수분도 많아 갈증 해소를 돕는다. 대두는 오장을 보호해 주고 경락의 순환을 도우며 장과 위를 따뜻하게 해 주는 효능이 있어 특히 여름철에 좋다.

또한 대표적인 블랙푸드인 대두 주자 '검은 깨'도 올 여름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기자. '검은 깨'엔 수용성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항암,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다. 특히 레시틴, 칼슘, 인 등이 풍부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 소화효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위장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간장과 신장을 보해 줘 무기력증을 막아준다.

전문가들은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많이 먹으면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진다"고 조언한다. 채소와 과일은 원기를 돋우고 피를 맑게 해 몸을 개운하고 가볍게 만드는 데 제격이다.

채식 뷔페로 잘 알려진 수플랜테이션 & 스위트 토마토(Souplantation & Sweet Tomato). 남가주 지역에서는 수플랜테이션이라 불리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스위트 토마토라 불리는 이 독특한 체인은 식당



수플랜테이션의 데니스 오브라이언 매니저

로 배달되는 냉장트럭에 실리기 24시간 이내 재배된 신선한 야채만을 사용한다. 샐러드 바는 스쿼시와 벨페퍼 등 다양한 종류의 제철 야채가 가득하며 수많은 종류의 무지방 드레싱도 즐길 수 있다.

건강은 기본, 맛까지 잡았다. 채식 뷔페 이기에 녹색 야채만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깬다. 입맛에 맞게 야채와 견과류, 소스 토핑을 곁들일 수 있는 각종 샐러드는 물론, 부드러운 스프와 갓 구운 빵과 머핀, 디저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탈리아 북동부가 원산지인 짭짤한 맛의 아시아고 치즈와 레몬을 곁들인 아시아고 시저샐러드가 특히 인기다.

단, 건강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 섭취는 피할 것.

▷영업시간: 일-목요일 아침 11시-밤 9시, 금토 아침 11시-밤 10시 ▷위치: 100 N. La Cienega Blvd. LA(3가과 라시에네가) ▷전화: (310)289-9160

음향 영상 미디어 세미나

음향, 영상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실제 교회 미디어 사역에 활용될 수 있는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예배와 교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음향, 영상, 녹음, 녹화, 편집, 설교CD 제작 및 배부 등의 기술까지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 목사님들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12년 7월 9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담임)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강사 : 음향(Audio) Nathan Kim, 영상 및 조명(Visual & Lighting) Justin Lee
그 외 Laservision World Staff

접수 : 김성일 목사(victorville4u@yahoo.com)에게 늦어도 7월 5일(목)까지
참석 여부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점심식사와 교재 및 영상 자료가 제공됩니다.



주최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주관 : 레이저비전 / 탑미디어 후원 :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 기독교일보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팔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일러움을 보유반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불부황/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담 213.271.7002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웹사이트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선풍설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선풍설 A/C 냉장,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펄링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펌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3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세명의 한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어떤병이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고 지침시 **50% 할인**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2011 大賞

*Black Box(차량용 영상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예지 않은 모든 사건 사고들을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 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먹으면서도 식욕억제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지방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장이 좋아 소화생활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을 때까지 치료)

양반/한반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가 자연스럽게 연골관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해드립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제3기 의료선교사 모집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선교한다

당뇨, 심장병, 편두통부터 골반교정, 척추교정까지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이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3기생을 모집한다.

이 재단은 오직 손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선교사를 육성해 수료가 끝난 선교사들을 하여금 금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LA지역 10명, OC지역 10명이며, 대상은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의료 봉사를 원하는 자로 제한한다. 교육 기간은 총 20주로 매주 2회 2시간 교육이 이뤄지며, 근육교정학, 체형교정학, 척추교정학, 영양물리학 등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교육이 진행된다. 강사는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박승부 장로(국제대체의학 전문대 학장)이며, 접수 마감은 7월 30일, 개강일자는 8월 6일이다. 이 과정을 수료할 시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해외 파송시 각종 혜택이 있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에서는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전문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해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수기치료를는 각종 디스크는 물론 성인병,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편두통 및 대부분의 병이 치료가 가능하다. 척추교정, 골반교정도 가능하며,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년간 이 길을 걸어온 박 장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주신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바 있다. 박 장로는 한의사이며 카이로프랙티지만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만 의지해 치료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근육 치료를 선수촌에서 했으며 대기업에서 건강 강의도 했다. 또 40여개국을 순방하며 건강강좌를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제1기생, 사진 한 가운데가 박승부 장로.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제2기생

열었다. 2008년 은퇴하며 도미한 그는 자신의 달란트인 수기치료가 선교지에서 더 큰 효과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선교지 국가의 의료법에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전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 장로는 이 치료법을 선교와 연결시키는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을 설립해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미 1기, 2기 40여명이 배출돼 세계

선교에 수기치료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 장소〉

LA: 2836 W. 8th st. #106
Los Angeles CA90005
OC: 8218 B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92844
문의) 213-381-7273, 213-605-2928
562-547-8653

토마스 맹 기자

한방으로 설(舌)암 치료하다

구기조 목사가 적극 권하는 기적의 암 치료법

기적의 암 치료법으로 치유받은 후 이 치료법을 전하고 있는 구기조 목사(남가주한인목사와 증경회장, 임마누엘 복음선교회장)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로 고통받으며 더 암을 키우지 말고, 암세포만 녹이고, 암의 핵까지 빠져나오는 기적같은 치료법이 있으니, 제발 희망을 갖고 믿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전했다. 아래는 한 여성의 체험사례다.

“제 이름은 로우르데스 산체스 페레스(Lourdes Sanchez Perez)입니다. 35살의 설암 환자였던 저는 혀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반병어리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로부터 한동규 박사의 ‘암의 자연 요법’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혀를 진찰한 그는 “평생 동안 만난 환자 중 당신처럼 혀 전체에 암이 퍼진 사람은 처음이다”며 “치료를 수 있을지 여덟지 확실치는 않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의했고 곧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입과 목에 직접 약침을 놓고 이틀치 약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약침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자 통증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고통 없이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개월 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결과 암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기쁨이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박사의 병원에서 3년이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병원 환자의 90% 이상이 수술과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암이 재발해서 찾아온 환자들이었지만, 한 박사의 치료를 받고 기사 회생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대체로 암이 전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문의) 213-235-5800

“본 글은 간증입니다. 즉, 의학적 지식이나 의사의 개인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간증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본지가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세흥허브 LA 진출 3주년 기념식 가져



세흥허브가 LA에 진출한 3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모임을 열었다.

(주)세흥허브가 LA진출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인 균형생식환의 체험시례가 발표됐다.

균형생식환은 현미, 울무, 마늘, 통밀, 결명자, 생강 등 26가지 곡류의 씨눈과 껍질에 있는 천연 비타민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으로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돌풍을 몰고 있는 균형생식환은 우리 몸에 균형된 영양소를 공급, 맑은 피가 돌게 해주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아픈 부위가 스스로 치유되게 도와주는 건강식품으로, 특히 암, 당뇨, 혈압, 비만 등 현대병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 그대로의 열매를 먹지 않고 각종 영양소 덩어리인 껍질을 벗기고, 심지어 고운 가루로 분말하여 찌거나 삶거나 얼리고 데우는 가운데 중요 영양소가 결핍된 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만 먹어 몸의 균형이 깨진 것을 천연 비타민과 미네

랄 제품인 균형생식환이 보완해 자가 면역력을 높여 주고 스스로 난치병을 극복하게 돕는다.

(주)세흥허브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주력 생식환인 균형생식환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당뇨병, 피부병, 위장병, 암 등으로 완치가 힘들었던 환자들끼리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이다.

균형생식환의 주원료는 황찬고이다. 성분은 양파, 도라지, 마늘, 포공영, 산수유, 뽕나무 추출물을 사용하는데, 특징은 몸 속의 혈관을 청소해 주어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속의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깨끗한 혈액으로 바뀌게 되면 탈모, 탈기부전, 중풍, 치매,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 등 혈액성 질환으로 오는 현대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문의) 세흥허브 미주지역 총판본부 웹사이트: www.seedcure.info
3431 W.8th Los Angeles, CA 90005
213-272-4454 토마스 맹 기자

선교사 건강 증진 위한 세미나 열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 영의 건강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육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못해 건강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

이에 ‘친환경 건강요법’으로 그간 많은 이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 온 지구촌농업선교회 김갑선 목사가, 선교사

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다.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과 육을 건강케 하신 말씀
- ▶건강 1, 2, 3차 세미나 및 식이요법
- ▶자연식 유기농 체험실습 및 손수 제작과정
- ▶식생활 개선 요령과 자연식 식사법
- ▶질병을 다스리는 요법과 암을 다스리는 식이요법

▶개인건강 상담을 통한 치유 특별상담
▶세미나 전기간 자연식 유기농 식사 참가 대상은 선교사 부부이며, 선착순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장소〉 톨라드(Lollard) 산장
13762 Middle Fork Rd. Lytle Creek, CA92358
〈문의〉 213-747-0168

한주연 기자

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즐거라~! 거침없이 내려가는 요금!

행사기간: 2012년 7월 16일 까지

~~\$34.99~~ ↓ \$9.99 (첫 3개월간, 이후 \$34.99/월)

글로벌 플러스 플랜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Plus 한국 휴대전화 무제한!

무료 부가서비스 한국 070 번호 제공 500분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무제한!

30일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이·토·크·비·비 iTalkBB *월인 이벤트-프로모션 기간 첫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정책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유료 부가서비스 마이크로라이팅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에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별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대 대신 안티크로 그린한 온라인 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민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돈 한푼 없이 첫달치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그냥 드립니다.**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등짝 가져 가세요.

7월 독립 기념일 특별 세일

\$0 Down Payment

\$0 First Payment

\$0 Security Deposit



2012 NEW EQUUS

(STK:045620)

MSRP \$59,65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2012 NEW GENESIS 3.8L

(STK:193210)

MSRP \$35,26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2013 NEW SONATA GLS

(STK:511730)

MSRP \$22,01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7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7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7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